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명절 기간  
기동청소반 등 추진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2021년 설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설맞이 및 마무리 국토대청소 추진,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중점 수거, 쓰레기처리상황반·기동청소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 음식문화 개선 및 폐대포장 점검 등을 추진한다.

오는 9일 관과소 및 읍면 설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10일까지 쓰레기 수거 등 대국민 홍보, 폐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14일에는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결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쓰레기 무단 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집중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책 설명제  
운영 조례 제정

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읍시 '정책 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 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책 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외에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과 '국민이 신청한 사업(국민 신청설명제)'을 추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자연생태도시 기반 조성

##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용역 추진

산·들·강·바다·갯벌이 모두 있는 곳.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생태환경 조성에 나선다.

3일 고창군 생태환경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용역 추진' 등 생태·환경분야 신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적극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생태탐방과 주민 소득증대의 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2023년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10주년을 맞게 된다. '세계 생물권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고창군은 3월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평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과는 놀라웠다. "고인들이 좀 많은 전라도 시골 동네" "산은산 단풍이 아름다운 곳" "수박과 복분자가 많이 나는 곳" 정도로 인식되던 고창군은 한순간에 '청정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을까 우려했던 주민들도 행정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생물권보전의 가치를 이해해 나갔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마크

가 붙은 고창군의 농특산물은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 더 비싸게 팔려 나갔고, 학교와 기관·단체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프로그램과 숙박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

현재 고창군은 2곳이 랍사르습지(고창갯벌 2010년, 운곡습지 2011년)에 등록돼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랍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 중이다. 랍사르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랍사르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증이 확정되면 하반기 제14차 랍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랍사르습지도시 인증시 '랍사르' 상징(브랜드)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관축,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또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전복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올해 진행될 현장에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해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해외 탐방객을 위한 안내판, 홍보체계

구축 등 세계지질공원 추진 기반 구축 전략에 총력을 펼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인증 획득 뿐 아니라, 서해안권 지질명소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과 유네스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유네스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전국 어느 지자체도 갖지 못한 유네스코 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고인돌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42억원(국비 15억 포함)을 투입해 2022년 완공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인 '자연생태원'이 건립된다.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토종 씨앗의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이 확보되고 고인돌유적지, 운곡습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생태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이밖에 ▲영산기막 숲재 생태축 복원사업 ▲친환경 교통수단(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약취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더해 생태중심도시를 향하는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군립미술관 이전건립사업, 운곡습지 생태관광 조성사업, 천년의 숲 조성사업 등이 각 부서의 울려들 추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을대교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고창군수, 이낙연 대표 만나 주요 사업 설명·지원 요청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고창군 발전의 발판이 될 2022~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종횡무진 누비며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지난 2일 고창군의회 전남보 의원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고창-부안(부창대교) 국도건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2022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유기상 군수는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서해안 시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요한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노을대교(고창~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7월중) 이후 갯벌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내 최고의 갯벌생태계를 품고 있는 고창에 전북 생태 거점시설 유치에 필요하다"라며 한국의 갯벌세계 자연유산센터의 고창 유치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에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노을대교(고창~부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무원들과 합심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특성 상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2022년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과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장, '119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 지역 안전 강화 기원

유진섭 시장이 지난 2일 지역 안전 강화를 기원하며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SNS 캠페인이다.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 먼저" 1.(하나의 집, 하나의 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소방의날을 맞아 인천 소방본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시작했다.

유진섭 시장은 "화재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잠깐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가정이나 차량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비 하는 작은 실천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유 시장은 다음 주자로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수 장수군수를 지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설 명절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정읍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점검·관리하고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 진료와 후송 등을 위한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에는 정읍시 보건기관 42개소와 정읍아산병원 등 25개 의료기관, 약국 26개소를 포함해 93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아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설 명절 응급진료체계 운영

부안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2월 11~14일) 중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안군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병의원 6개소, 약국 10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를 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해성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4개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 ☎ 580-380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